

季節學期 運營改善의 代案摸索

李 星 鎬

(延世大 教育學科)

季節學期가 실시된 지 겨우 세 해째란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수 없고, 또 定着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問題點만을 들추어 내어 비판하기보다는 그 代案을 모색하는 일이 보다 바람직하겠기에, 이 글에서는 代案의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1. 序 言

우리나라 教育法 제152조는 季節授業을 허락하고 있다. 教育法施行令 제61조에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學은 季節學期¹⁾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절학기에서 學習할 수 있는 者는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復學, 再修 또는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하다고 學則이 인정하는 者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우리나라 大學에서는 부분적으로 季節授業이 實施되어 왔다. 그러나, 季節學期가 學事曆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 本格的으로 開設되기 시작한 것은 '84학년도부터이다. 그 이

전까지는 대체로 1학기가 20주, 2학기가 16주간의 授業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1, 2학기를 모두 16주간의 수업으로 均等化시키고, 여름방학 기간을 10~11주의 기간으로 延長시키면서 여름방학 기간을 보다 效率的으로 활용하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季節學期의 運營이 각 대학에 권장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소 때늦은 감도 없지 않겠으나, 우선은 각 大學에서 季節學期로서 夏季課程을 설치·운영해 나가는 매 심혈을 기울여 왔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에 걸친 계절학기의 運營 實態를 살펴볼 때, 거기에는 다소 問題가 있었

1) 엄밀한 의미에서 季節學期는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경우와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學期制로서, 방학을 이용하는 수업은 學期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름방학을 이용한 수업은 季節學期라고 부르기보다는 '夏季課程(summer school 또는 summer sess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表現이 될 듯 싶다. 그러나, 지금 모두가 季節學期라고 말하던, 大學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수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夏季課程이란 표현을 같은 의미로 때때로 혼용하기로 하겠다.

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계절학기 설정의 基本的 目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間隙이 노출되었으며, 그 運營過程에 있어서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제기된 것이다. 季節學期는 더 이상 지난 2년의 경우처럼 운영될 수는 없으며 改善되어야 한다. 개선의 基本方向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適當한 最善의 代案을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절박하다.

이러한 뜻에서 本稿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은 改善代案을 모색하는 基礎로서, 季節學期 설정의 本來的 目的을 究明하고 지금까지 2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問題點들을 따져본 다음, 계절학기 運營改善의 基本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季節學期 운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例示的인 代案들을 설정하고, 그 理由 및 必要性和 그 例示의 實踐方案과 附隨條件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改善代案 摸索의 基礎

1) 季節學期 설정의 本來的 目的

대학의 학사행정이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關鍵的 要素는 大別하여, 時間, 空間, 資料(人的 및 物的), 組織, 節次 그리고 結果의 여섯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學期制 또는 學曆(academic calendar)은 바로 위의 여섯 가지 요소 중 時間에 관련된 核心要素이다. 그러기에 대학의 학기제는 歷史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단히 研究課題가 되어 왔으며, 또 多樣하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今世紀 후반에 들어 知識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의 構造的 變化, 학생들의 異質化, 敎授·學習方法의 多樣化, 교수들의 學問的 삶의 類型의 變化, 그리고 학생들의 多元化된 熱望 등은 대학으로 하여금 教育的 效率性和 質的 秀越性を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學期制를 강구하도록 촉구하게 되었다. 美國 大學의 경우, 傳統的인 2學期制가 서서히 무너지고, 早期 2學期制, 4·1·4制, 4學期制, 3學期制 등 다양한 학기제가 연구·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음은 바로 學期制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 관심을 쏟지 않았던,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夏季課程을 새삼 설정하고 시행하려고 한 까닭은 단순히 긴어진 여름방학 기간의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한 가지 이유에서가 아니다. 그것은 곧 위에서 말한 바 있는 大學教育에 대한 변화된 大學內外의 요구를 收斂하면서 교육의 質的 水準을 제고하고 量的 範圍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좀더 세분하여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夏季課程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本來的 目的의 下에 출발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1) 教育機會 擴大를 통한 勉學風土의 조성
夏季課程의 설정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학생들에게 教育機會를 확대시켜 준다. 하나는 正規 敎科課程 履修에서의 기회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非正規 敎科課程에서의 기회 확대이다. 前者의 경우는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고, 後者의 경우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前者의 경우,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는 夏季課程 이수를 통하여 修學年限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수학연한을 단축하지는 않더라도 학생들 개개인의 진도나 흥미 및 능력에 맞추어 교과목을 履修하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고, 또한 특정한 학생들에게는 失敗하였거나 不足을 느끼는 교과목에 대하여 추가로 補習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줌을 의미한다. 한편, 後者의 경우는 학생들의 다양한 學術的·文化的·社會的·心理的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뜻하는 바, 그 內容과 形態는 필연적으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機會의 擴大를 위한 하계과정의 설치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能力別 早期卒業이나 複數 專攻 및 副專攻制度 등의 일련의 學事改革과도 脈을 같이하여 출발한 勉學風土 造成方略의 일환이라 하겠다.

(2) 教育課程의 研究實驗과 開發

夏季課程은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거나 또는 각 학문영역 상호간의 엇물림을 통한 間學問的 敎科목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실험의 기간으로서도 중요한 목적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敎授學習體制에 있어서도 새롭게 다양한 방법과 체제

를 연구·실천하여 創出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도 하계과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傳統的인 2학기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과중하게 편성된 교과과정 속에서 교수나 학생 모두의 教授·學習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연구·실험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3) 社會的 教育要求에 따른 平生教育 機能의 발휘

오늘날 대학은 平生教育 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教育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必要的 改革的 方案을 강구하도록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다. 季節學期는 바로 이러한 요청에 따른 적절한 반응으로 출발한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이 평생교육 관점에서 成人들을 대상으로 한 教育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지만 일부 대학들이 成人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영역에서 短期 教育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제 夏季課程의 개설은 대학을 사회인들에게 적극적으로 開放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교양강좌 수준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專門職에 관련된 再教育 또는 補習教育, 刷新教育으로서 대학의 夏季學期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4) 大學間的 協同體制 促成

夏季 季節學期의 설정은 대학간의 教授의 交流뿐만 아니라 學生들의 交流를 통하여 대학간의 協力을 促成하고자 하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수의 경우, 여름방학 동안에 가고 싶은 他大學에 가서 한 강좌를 가르치면서 새로운 강좌의 개설을 준비하거나 또는 교과서나 연구 보고서 집필하는 일로써 相互交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또는 共同研究課題를 수행하면서 팀 티칭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류도 夏季課程이 설정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된다. 예컨대, 어느 特定 他大學에 가서 특정 教科目을 수강한다고 했을 때, 그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學生交流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교수와 학생의 교류를 통한 대학간의 협력은 곧 대학의 勉學氛圍氣를 쇄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重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5) 經營管理의 效率化

하계과정은 단순히 遊休施設의 활용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대학의 經營管理의 效率化라는 측면에서 구상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財政的인 측면에서나, 施設의 管理運營面에서나 學生指導의 측면에서나, 人的·物的 資源의 활용 측면 등에 있어서 그 效率性和 效能性을 極大化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출발한 것이다.

2) 季節學期 運營에서 나타난 問題點

지난 2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실시한 季節學期 運營實態를 집약해 보면, 우선 夏季課程을 개설한 대학의 數는 다음의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 보던 쉽게 알 수 있듯이, 실시 첫 해보다는 그 이듬 해에 採擇大學의 수가 증가되었다. 세 가지 類型의 夏季課程, 즉 학점을 부여하는 수업,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 그리고 地域社會 成人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강좌의 세 가지 가운데서도, 비교적 개설이 용이한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재학생 대상 공개강좌가

<表 1> 季節學期 採擇大學數

類 型	'84年				'85年					
	全體大學數	採擇大學數	全體大學數	採擇大學數	綜合大			單科大		
					國公立	私立	小計	國公立	私立	小計
學點賦與授業	99	64%	100	72%	91%	91%	91%	73%	52%	56%
公開講座	99	79%	100	80%	91%	100%	98%	73%	64%	65%
成人講座	99	38%	100	41%	45%	50%	49%	55%	30%	35%

제일 많이 개설되고 있다. 대학의 類型別로 보면, 綜合大學의 경우에는 國·公立과 私立大學間에 별 차이가 없으나, 單科大學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경우보다 國·公立大學의 경우가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비교할 때, 단과대학의 경우보다는 종합대학의 경우가 훨씬 활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종합대학이 人的·物的 資源에서 비교적 풍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 가지 유형의 夏季課程을 '85년도를 중심으로 좀더 살펴보면, 학점을 부여하는 季節授業은 대체로 4~8週間に 걸쳐 학생들이 6학점 정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大學別로 개설한 과목의 수를 살펴보면, 적게는 2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59개 과목을 개설한 대학도 있었다. 개설한 과목 가운데는 敎養科目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系列基礎科目, 專攻基礎科目, 專攻科目의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생들을 위하여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公開講座는 대체로 短期間에 걸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각종 外國語 講座, 컴퓨터 특강, 就業 및 各種 考試 對備 특강이 主流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 테니스, 수영 등의 스포츠나 꽃꽂이 등의 취미교실도 있었다. 또한 地域社會를 위한 成人一般講座는 특정 集團, 예컨대 女性, 新婦, 老人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市民一般을 대상으로 하는 敎養講座도 있었다. 그 외의 전문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과정, 예컨대 貿易實務, 會計實務 등의 강좌를 개설한 대학도 있었다.

이상이 지난 2년간에 걸쳐 실시된 季節學期 運營實態에 대한 要約이다. 이제, 이러한 2년간의 경험과정에서 나타난 問題點들을 몇 가지만 選別的으로 지적해 본다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外面당한 夏季課程

앞서 本節 冒頭에서 몇 개의 대학들이 季節學期를 採擇하였느냐를 따져 보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반드시 모든 대학에서 劃一的으로 계절학기를 내나할 것 없이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지 않는다. 결코 계절학기가 또 하나의 具色 갖추기

의 희생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개설되는 夏季課程이 얼마나 교수나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성인들로부터 환호를 받느냐 하는 점이다. 교수와 학생, 지역사회의 성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하계과정은 근본적으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보다 상세한 統計的 數値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체적으로 夏季課程에 참여하는 학생의 數가 극히 적고, 또 교수들도 하계과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렵게 설정한 과목도 수강생 數가 극히 적어 폐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事例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夏季課程이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근본적으로는 우리네 인식·속예 2學期制의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여름방학은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타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夏季課程이 교수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誘引力 또는 誘引體를 사전에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參與欲求를 助長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실시된 바 있는 여름방학 기간중의 수업은 學點未達者 또는 科落者들을 위한 보충수업의 성격을 띠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하계과정은 그러한 類의 格이 낮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면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저 敎養科目이나 基礎科目 수준,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夏季課程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저조한 것은 대학당국에서의 하계과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부족한 데에도 그 일부 요인은 있다고 본다.

(2) 프로그램開發 努力의 不足

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따로 떼어서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곧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의 연구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그저 단순히 각 학과에다 무슨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의 자료 수집을 통해, 적당히 취사선택

하는 식의 夏季課程 開發이라면, 그것은 교수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正規學期에 개설된 과목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개설하는 식, 학생들 스스로가 主導하며 오랫동안 실시해 온 각종 취적특강이나 외국어 강좌를 형식적인 線에서 여름학기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식의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夏季課程 開設이었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하계과정의 발전을 매우 어렵게 함에 틀림없다. 교수나 학생들의 요구를 보다 단밀히 査定하고, 사전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나 협조를 통한 보다 새롭고, 보다 호소력 있는 夏季課程 教科目이나 公開講座 內容들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時間運營에 있어서도 보다 깊이 있는 事前檢討가 있어야 하며, 教授方法이나 公開講座 운영 방법 등도 특성 있는 것이 되도록 철저히 연구한 다음 夏季課程으로 編成·運營하는 努力이 부족하였다.

(3) 同種繁殖의 夏季課程 內容

이는 우리나라 大學의 뿌리 깊은 문제의 하나이겠으나 각 대학마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夏季課程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듯이, 각 대학에서 개설한 夏季課程의 내용들이 매우 類似하다는 점이다. 꼭 같다고 해서 굳이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각 대학이 지니고 있는 人的·物的 資源의 특성 또는 교육여건의 제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하계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를 통하여 보다 독특함이 있는 夏季課程을 개발하며 운영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個性 없는 同調性의 우의를 고수할 것인가? 각 대학마다 主導性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4) 大學間의 非協調

이 역시 우리나라 대학의 또 다른 뿌리 깊은 문제의 하나인 바, 그 현상은 夏季課程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학의 典型的인 閉鎖性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 協力體制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學期를 통한 교수와 학생의 交流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는 바야흐로 大學間의 國際的 協力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간의 협력, 더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간 교수의 협력, 학생의 협력이 先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과중한 學事行政 負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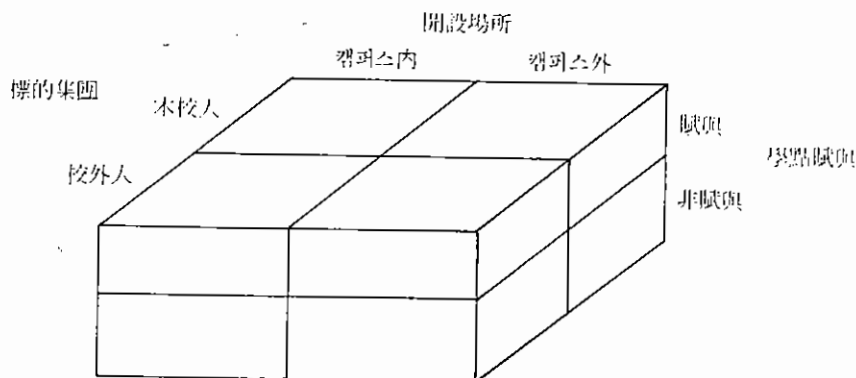
대학에서의 學事行政의 主務部署는 敎務處(課)이다. 敎務處는 전통적인 2學期 體制의 학사행정을 전담하였고, 人力과 運營體制도 그에 걸맞게 되어 있다. 더우기 빈곤한 재정 속에서 행정인력지원의 節減을 추구하는 대학에서는 물론, 夏季課程에 따른 학사행정 부담이 과중한 것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하계과정의 학사행정은 敎務部署에 과다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무부서의 경우, 학기 도중에는 他部署와 마찬가지로 바쁘겠지만 두번에 걸친 방학기간중 겨울 방학 기간은 卒業, 入學試驗 등의 학사업무로 거의 없는 것과 다른없는 형편이고, 그래도 연간 좀 쉴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여름방학 기간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季節學期 때문에 그 여름방학마저 빼앗기지 않았는가? 여름방학을 조금이나마 건지려 하다 보면 계절학기가 소홀해지기 쉽고, 제대로 하자니 여름방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季節學期 운영은 이렇듯 학사행정의 부담을 加重시키고 있는 바, 이는 계절학기 運營改善에서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3) 季節學期 運營改善의 基本方向

季節學期가 本來的 目的을 성취하면서, 전통적인 2개의 정규학과 더불어 대학교육 과정의 하나의 核心的인 時間 요소가 되어 韓國 大學教育發展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려면, 그 개선의 기본 방향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앞서 두 개의 節로 나누어 밝힌 本來的 目的과 問題點 지적에 관련지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改善의 基本方向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課程의 多元化

夏季課程의 내용은 그 과정의 對象集團, 場所, 學點賦與의 여부 등에 따라 근본적으로 多



〈그림 1〉 夏季課程多元化的 模型

元化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水準이나 內容의 性格, 運營節次 특히 期間設定 등에 따라서도 하계과정은 다원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원화는 반드시 한 대학내에서 그 모두를 해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원화된 부분 중,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어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大學間에 그 特定部分이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여러 가지 準據를 놓고 과정의 多元化를 시도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例示的인 類型으로 標的集團, 開設場所 및 學點賦與의 세 가지 기준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위의 〈그림 1〉과 같은 模型을 그려볼 수 있다. 즉, 우선 첫째로 標的集團을 本校人(校內人)과 校外人(校外人)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本校人은 본교의 교수, 학생, 행정직원 등이 포함되고, 校外人에는 他校 학생, 他校 교수와 행정직원을 포함하며, 일반 시민, 동창생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둘째로 開設場所도 夏季課程이 캠퍼스內에서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캠퍼스 밖 즉, 他校 캠퍼스나 특정한 여름휴양지나 또는 관련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셋째로 學點賦與는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프로그램은 크게 8가지 類型으로 多元化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준거를 사용한다고 할 때, 프로그램의 다원화는 얼마든

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앞에 지적한 바 있듯이, 진실로 夏季課程이 그것의 消費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의 제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多元化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위의 여러 가지 類型中, 몇 가지는 例示的으로 다음에 章을 달리하여 代案으로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서의 더 깊은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2) 質的 秀越性的 提高

앞서의 프로그램의 多元化가 양적인 機會擴大에 해당된다면, 앞으로의 개선방향의 한 가지는 반드시 夏季課程의 質的 水準을 드높이는 일이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그 교육의 質的 秀越性을 고양할 수 있느냐에 成敗가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하계과정도 결코 例外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계과정이 더 이상 특별한 課外 補充授業格의 누명이나 서자 취급에서 탈피하려면, 하계과정의 質的 水準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夏季課程에 대한 계획 수립과 운영 과정 등 전반에 걸친 면밀한 評價의 分析 등의 연구와 실험이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하계과정의 운영을 위한 行政管理 體制에 있어서도 상당한 연구와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大學內 및 大學間 協力增進

夏季課程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학내에서의 교수 상호간, 학과간, 교수와 학생간의 협력이 증진되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大學內의 協力을 근간으로 하여, 大學間, 각 대학의 教授間, 學生間, 學科間의 協력이 성취되고 증진되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협력은 夏季課程의 計劃, 編成, 施行, 評價 등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傳統的 2個學期制과의 連繫性 확보

우선 期間上의 문제로서, 1學期가 16주이고 여름방학이 10주~11주이며, 2學期가 16주이다. 여기서 1학기 終了後의 1주간과 2학기 開始前의 1주간을 제외한다면, 夏季課程의 可用 最大期間은 8주간인 셈이다. 이 8주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때, 기간상의 연계는 16·8·16體制(또는 月數를 기준으로 할 때는 4·2·4)로 前後가 전통적인 학기와 연계되어 명실공히 年中無休 教育課程이 된다. 이 때, 연계는 단순히 시간만을 이어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教育課程 編成 전체에 있어서 連繫性(articulation)이 확보되는 방향에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夏季課程이 1학기나 2학기에 무관하게 별도로 독립된 特別課程이 되어서는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5) 制度的 支援體制의 강화

夏季課程을 지원하기 위한 制度的 補完이 시급히 요구된다. 예컨대, 하계과정은 大學間의 學點 相互認定, 早期卒業制, 卒業定員制, 學點評價方式, 經營管理體制, 受講料 問題 등과 밀접한 관련하여 개선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관련성의 면밀한 검토가 先行된 뒤, 夏季課程이 活性化될 수 있도록 制度的 補完策의 장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成人들에 대한 定時制 入學의 허용, 休學과 復學制度的 改善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 가지 더 밝히면, 夏季課程에 대한 認定 與否를 判定할 수 있는 質的 水準의 설정과 그 評價體制도 長期的으로 연체고 수립될 필요도 크다고 하겠다.

3. 改善의 例示의 代案들

本章에서는 이제 앞서 제시한 改善方向에 따라 몇 가지 改善代案들을 例示的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들 代案들은 곧 基本方向의 구체적인 實踐方案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선 提案을 한 다음, 각 제안의 理由와 必要性 그리고 그 實踐方案과 附隨必要條件들을 가능한 대로 밝혀 보기로 하겠다.

1) 學點賦與 開設教科目的 多樣化

夏季課程의 學點賦與 교과목은 問學間的인 性格을 띤 교과목, 系列別로 널리 인정되는 基礎 및 選擇科目, 여러 학과에서 副專攻으로 인정하는 교과목, 그 외 季節의 特性을 살릴 수 있는 一般教養科目과 產學協同科目 등으로 多樣化시켜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理由 및 必要性

夏季課程은 學科單位로 교과목을 개설하기는 어렵고 대학 全體學生들을 對象으로 하는 바,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로부터 의뎉당하여 개설해도 폐강되기가 십상이다. 또한, 專攻科目이 너무도 細分化된 深化教科目이고 보면, 아무래도 受講可能者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계과정의 교과목은 근본적으로 여러 분야의 學科學生들에게 共通的으로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곧 관련 專攻分野間的 엇들림을 바탕으로 한 問學間的 教科目인 것이다. 그 외에도 專攻基礎나 選擇科目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副專攻制를 活性化시키고, 正規 學期課程에서 專攻學科 학생들과의 共同受講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便益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많은 數의 他學科 학생들이 수강하는 특정 專攻科目은 별도의 設講이 필요한 바, 여름學期는 바로 그러한 것을 끌어들이 교과목의 多樣化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름이라는 계절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도 개설하여 教科目 多樣化에 기여하게 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2)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

問學間的 性格의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면, '地域社會研究', '創意的 意思疏通', '環境科學研究', '人間生物學', '文化的 變化', '科學과 環境變化', '人間適應', '分析과 問題解決', '現代世界問題', '藝術과 人文科學' 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여

기서 일일이 모든 類型의 과목들을 열거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애 이 提案에 따른 몇 가지 先決되어야 할 附隨條件만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間學問的 교과목 개발을 위한 相關 학과 간 및 相關 교수들간의 밀도 있는 協同作業이 요망된다. 특히, 팀 티칭 形式의 間學問的 協同 教授方法에 대한 事前的 준비가 무엇보다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각 학과에서는 專攻基礎로, 專攻選擇으로 인정하는 他學科의 교과목 또는 大學全體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幅을 확대시켜 놓아야 한다. 결코 자기네 학과의 교과목만으로 울타리를 높이쳐서 학생들을 가두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副專攻에 대한 각 학과의 閉鎖的인 태도가 불식되어야 한다. 즉, 認定하는 副專攻 분야의 범위와 學科의 幅을 넓히는 대신에 자기네 학과를 부전공할 경우, 他學科 학생들에게 敎科目的 특성을 이유로 지나치게 수강기회를 억제하는 경직성을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季節의 특성을 살리는 敎科目 開發에 대해서도 事前研究를 보다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캠퍼스 밖에서 그 운용이 가능한 교과목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교과목은 특히 藝·體能分野에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 교과목은 他專攻分野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自然生態學을 근간으로 하는 研究分野라든가, '現場實習'을 강조하는 전공분야 그리고 產學協同을 필요로 하는 專攻分野에 따라서는 여름 학기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活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無學點課程의 多樣한 프로그램 開發

夏季課程에서 學點을 부여하지 않는 과정은 학생들의 知的·社會的·情緒的 發達欲求를 충족하는 多樣한 프로그램으로 開發·編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理由 및 必要性

夏季課程은 정규 학기에서는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無學點課程을 集中的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無學點課程이 학생들의

成長動機나 自我實現 動機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것은 形式에 불과하고 結果적으로 하계과정 전체의 質과 格을 낮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계과정에서의 無學點賦與 課程은 프로그램의 開發過程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 있는 조직적인 計劃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內容選定과 組織에 있어서의 有意味性, 效能性, 有用性 등이 고려되어 多樣化될 필요는 매우 크다.

(2)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

無學點課程으로 夏季學期에 개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例示하던, 1학년 新入生들을 위한 生活實踐인 大學生活을 위한 大學生活計劃 워크샷, 學習方法開發 워크샷, 生涯開發 워크샷 등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한 학기간 大學生活을 마친 時點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워크샷은 學生指導 및 開發의 次元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또 다른 實踐方案을 예시하면, 교수와 학생들이 共同으로 參與하면서 교수와 학생간, 학생 상호간의 相互接觸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現場踏查가 그렇고, 각종 趣味敎室이 그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社會的 機能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無學點課程으로 개설되면,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對人關係 技能訓練, 意思決定練習, 問題解決技法, 集團會議方法, 面接의 技術, 相談技法, 結婚과 家庭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 외에도 지금과 같은 각종 취미교실 또는 직업준비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다.

이상에서 예시한 프로그램들을 實踐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생각하여야 할 점은,

첫째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方法上的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方法이 특강의 형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워크샷, 집중토의, 현장탐구, 개별지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展開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吐露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 期間의 적절한 融通性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8주간 계속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짧게는 1일 프로그램에서 시간단위로 20시간 워크샵, 30시간 워크샵, 5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간의 메뉴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는, 그 場所도 반드시 캠퍼스內로 국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캠퍼스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함이 좋다. 예컨대 '속리산 연세여름대학'이라는 이름하에 그곳에서 學點을 부여하는 課程과 더불어 實施될 수는 없겠는가라는 점이다. 또는 각종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캠퍼스 밖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實踐에 옮겨질 경우, 그 場所를 캠퍼스 밖으로 설정하는 일은 더욱 가능하리라고 본다.

네째로, 대학은 校外人 특히 동창생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대학을 開放하는 學點非賦與 課程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창생들에게는 無科受講의 機會를 부여함으로써 모교와의 유대감을 높이고 모교에 대한 긍지를 느끼며, 그 고람을 다른 방법으로 대학에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함도 좋으리라고 본다.

다섯째로, 學點非賦與課程을 담당하는 校內 教授들에게도 學點賦與課程 못지 않게 그 負擔을 인정해 주고, 적절한 처우를 해줄 수 있어야만 하리라고 본다. 결국, 學點을 부여하는 課程이 아니라고 해서 編成過程이나 經營管理 등에서 경시되거나 소홀해지던 안 되리라고 본다.

3) 教授資質 開發을 위한 夏季課程의 활용

夏季課程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教授(teaching) 및 研究活動을 助長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教授들의 資質開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理由 및 必要性

오늘날 대학에서의 教授資質의 필요성에 대한 認識은 加增되고 있다. 특히 新任教授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또한 教授資質 開發의 내용도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教授(teaching) 能力의 함양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自我開發, 組織開發, 地域社會開發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내용들의 教授資質開發 프로그램들이 충실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그 實施

方法上的 制반 節次나 過程이 교수들의 요구나 기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는 물론 教授資質 開發 문제에 대한 理解와 認識의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계과정은 곧 教授資質의 개발을 위한 적절한 시기로 活用될 수 있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평소의 正規學期 도중에는 時間적으로나 心理적으로 교수들의 참여를 誘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教授資質 開發 프로그램은 교수들의 自發的인 참여를 통한 集中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바, 여름방학 기간은 그러한 시기로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과 같다.

(2)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

여름방학을 이용한 教授資質 開發 課程의 몇 가지 例示의 實踐方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특정 學問分野의 새로운 研究開發 추세에 대한 집중세미나 또는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특정 학문분야에서 강한 教授資源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 主幹이 되어, 他大學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1주일 또는 10여 일간의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學問發展에 대한 새로운 視點을 형성하고, 같은 분야 교수들끼리의 유대와 協同을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음하여 '教授研究大學'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다시금 학생과 같은 신분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여름 休養地에서 실시하여 여름 休養과 自體研修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부수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각 所屬大學은 자기네 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수들의 入會費(參加費)와 旅費, 手當 등을 특별히 지급하거나 研究費를 지급함이 좋을 것이다.

둘째는, 教授方法 刷新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샵 같은 것을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20명의 教授들로 팀을 구성하여 소규모 실험 教授(micro-teaching)를 직접 해보면서, 教授方法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며, 각자의 授業能力을 쇠신해 나가는 課程을 개설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장소 또는 부수조건 등은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의 '教授研究大學'과 마찬가지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세째는, 敎授들의 自我開發 특히 新任敎授들의 大學社會에 대한 適應能力과 敎학 및 학생에 대한 理解의 폭을 넓히고 敎授로서의 生涯를 開發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自我開發 워크샵이나, 組織開發 워크샵 등도 위에 제시한 부수조건에 따라 하계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4) 夏季課程에서의 大學間的 協同摸索

夏季課程에서 각 대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他大學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하계과정을 共同으로 主催하거나 敎授를 交流하고, 멀리 타 대학에서 또는 他地方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개방해 주는 등의 多様な 協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理由 및 必要性

앞으로의 韓國 大學敎育의 發展을 위해서는 大學間的 協同이 더욱 促進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協同이 正規學期 도중에는 지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계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相互認定하고 敎授를 交流하는 등의 일은 비교적 용이하고 또 그러한 계기를 통하여 대학간의 협동이 보다 昇華된 次元에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뒤에 가서 제안을 하겠으나, 夏季課程을 반드시 모든 대학에 개설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고, 몇몇 대학만이 선택적으로 하계과정을 실시한다고 할 때, 그러한 大學間的 協調는 매우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地域間에 散在되고 있어, 방학기간 동안에는 所屬學校를 떠나 각자의 거주지나 특정 지역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夏季課程 기간만은 通學이 가능한 편리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한 가지 必要性만 더 이야기 한다면, 학생들은 자기네 대학에서는 결코 受講의 機會가 없는 특정 분야의 공부를 他大學에 가서 할 수 있는 學習機會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타 대학에 가지지만 존경하는 敎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배움의 欲求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夏季課程에서의 대학간의 협동은 助長될 필요가 매우 높다.

(2)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

학점을 相互認定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認定範圍와 基準을 설정하는 研究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계과정의 개설 敎科目標와 각 교과목에 대한 內容概要가 보다 일찍 작성되어, 각 대학에 事前에 配布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매년 3월말 이전에 확정되면, 韓國大學敎育協議會와 같은 機構에서 그것을 收合하여 책자로 만들어 각 대학에 配布하고, 각 대학, 각 학과에서는 이를 보고, 認定 敎科目을 결정, 學期末 이전에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他大學에 受講하러 오는 학생들에게도 本校 학생과 똑같은 대우로 圖書館 등을 出入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특히 먼 地域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는 유류 기숙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登錄金(受講料)도 本校生과 똑같은 수준에서 내도록 함이 좋겠으나, 기숙사 이용비 등은 별도로 징수해도 무방할 것이다.

夏季課程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協同領域은 敎授들의 交流이다. 특히, 他大學 敎授를 초빙하여 하계과정 講義를 부탁하는 협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他大學 敎授와 本校 敎授間的 協同講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敎수들간의 事前 研究協議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特別 研究費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大學間的 協同에 관한 例示的 實踐方案을 한 가지만 더 든다면, 인근지역에 위치한 대학들끼리 共同으로 夏季課程을 開設하는 것이다. 3~5개의 대학들이 협동으로 그리고 운반제로 돌아가면서 主管大學이 되어 協同課程을 개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는 물론 서로간에 학점을 인정한다는 原則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 正規學期와 夏季課程의 連繫性 확보

하계과정은 별도의 독립된 補充的인 課程이라기보다는 1학기와 2학기를 연계시키는 교량적 시기로서, 敎科目 開設과 時間編成, 受講學點數나 敎授負擔 및 登錄金策定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한 選擇機會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理由 및 必要性

夏季課程이 그 本來的 目的을 성취하려던 결코 正規學期와 유리된 특별한 性格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放學 동안에 제공되는 특별한 활동이나 특별과정 등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하계과정이 正規 1학기과 2학기 못지 않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夏季課程의 모든 教育課程 要素들이 正規學期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즉, 受講學點數의 결정이라든가 敎科目 開設과 그 時間編成 등은 물론 敎授負擔 算定이나 登錄金 策定에 있어서까지 정규학기과 연계되어 결정될 필요가 매우 크다. 그것은 곧 季節學期로서 하계과정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훗날 경우에 따라서는 韓國 大學教育에서의 3學期制나 4學期制 등 다양한 학기제가 발전되어 대학마다 적합한 學期制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리라고 본다. 하계과정을 正規學期와 연계시키는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수와 학생들의 參與意識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夏季課程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經營管理의 合理化 및 學事行政의 體系化를 기하는 데 그러한 연계성 수립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

첫째로, 敎科目 開發에 있어서 하계과정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은 1학기 開始 즉 1학기 受講申請 이전에 早期 確定됨이 좋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1學期, 夏季課程 및 2學期의 모든 開設科目이 새 학년도 시작 이전에 확정되어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公告됨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수들은 年間敎授計劃을 수립하고, 학생들은 하계과정을 포함한 年間受講計劃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學科나 敎養課程에 있어서도 그러한 하계과정의 早期 確定을 통하여 敎科目 編成의 연계성, 균형성, 통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利點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受講學點數도 현행 年間 35학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夏季課程에서는 최대한 受講學點數를 12학점으로 대폭 늘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年間 35학점씩 3년간을 이수하고, 세 번에 걸친 즉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세 번의 夏季課程을 빠짐 없이 12학점씩 이수하는 優秀한 학생들은 3년간의 대학의 全體課程 140학점을 이수하고 조기에 卒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따라서는 9학점 또는 6학점씩 취득하여 졸업을 1학기 정도 단축시킬 수도 있으며, 어떤 학생의 경우는 試驗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夏季課程에서 몇 학점을 따면서 卒業을 단축할 수 있느냐에는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 하계과정에서의 時間編成의 多樣性도 길이 통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앞서 運營改善의 基本方向에서 언급하였듯이 夏季課程을 8週의 기간으로 한다고 할 때, 3학점짜리 교과목을 1學點當 16시간 원칙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時間編成이 있을 수 있다.

<表 2> 季節學期 時間編成 例(3學點 기준)

하루 授業 時間 數	1 주 간 授業日 數	授業週數	전체 授業 時間 數
매일 1시간	6일	8주	48시간
매일 2시간	6일	4주	48시간
매일 3시간	2일	8주	48시간
매일 3시간	4일	4주	48시간
매일 2시간	3일	8주	48시간

<表 2>에 제시된 경우 외에도 그러한 편성의 融通性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科目의 性格, 擔當敎授의 사정 등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기회를 주면, 학생들은 그 안에서 각기 최대 12학점까지를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하루의 수업시간도 여름이라는 계절의 더위를 고려하여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한낮에는 쉬고 전기를 켜지 않아도 될 저녁시간을 活用하는 方案을 강구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하루 3시간 속강수업을 기준으로 例示한다면, 오전 8시~11시,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8시까지의 세 차례 수업시간을 편성하여 2시에서 5시까지는 피하거나, 또는 오전 9시~12시, 오후 4시~7시까지의 시간대를 活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1학점이나 2학점짜리 과목의 경우, 時間의 融通적인 편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感者

는 3시간 연속 수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과목의 성격과 동원되는 敎授方法에 따라서는 同一科目을 3시간 계속하는 블럭캘린더(block calendar)가 오히려 효과적인 경우도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敎授負擔策定에 있어서도 1학기 및 2학기 와 연계시킴이 좋으리라고 본다. 즉, 學期當 9학점의 敎授負擔이라고 할 경우 年間 18학점의 교수부담인 바, 이를 하계과정까지 合算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A敎授는 1學期에 6학점, 夏季課程에서 3학점, 그리고 2學期에 9학점을 가르치면 최소한의 敎授負擔을 이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夏季課程은 더위 속에 進行되는 특별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학에 따라서는 그 부담을 正規學期의 2배로 책정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1學期에 6학점, 季節學期에 3학점, 2學期에 6학점을 가르친다면, 계절학기의 3학점을 2배로 계산하여 年間 전체 18학점을 가르치는 것으로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夏季課程을 1,2學期와는 區別하여 실시할 경우, 하계과정의 敎授들에게는 正規學期에서의 초과강사로 또는 기본강사로의 2배 이상으로 강사를 책정 支給하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본다. 또 다른 가능성을 예시하면, 1學期, 季節學期, 2學期 중 교수의 選好에 따라 1개 학기를 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끌어들이기에는 지금과 같이 敎授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따라서 敎授負擔이 과중한 형편 아래에서는 그 實現可能性이 매우 희박하리라고 보지만 長期的인 안목에서는 깊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학생들의 登錄金 負擔도 1학기, 2학기 와 연계시켜 봄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처럼 學期當 18학점을 수강한다고 할 때, 어떤 학생이 1學期에 15학점만 신청하고, 夏季課程에서 3학점을 수강한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1學期에 납입하는 등록금만으로 夏季課程까지 그냥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夏季課程의 受講料는 평소 正規學期의 등록금에 비례하여 學點當 등록금으로 策定, 수강신청하는 學點數만큼 등록금을 납입하도록 하되, 9학

점 이상의 경우는 모두 똑같이 夏季課程 全時學生(full-time student) 등록금으로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하계과정 學事管理 獨立部署의 설치

夏季課程을 보다 效率的으로 體系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季節學期 全擔 學事行政部署를 설치하여 敎育課程의 編成과 學生指導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理由 및 必要性

앞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여름학기 課程은 현재 敎務部署나 學生指導部署에 상당한 負擔을 加增시킬 수 있다. 물론, 지극히 소규모로 실시하는 現行과 같은 季節學期 機能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절학기를 제대로 운영하고 앞서 제안한 여러 가지 代案들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學事管理 業務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계과정에서의 學生指導 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의 大學의 제반 補助施設의 운영 문제도 크게 대두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敎務處(課)나 學生處(課)의 人力만으로는 그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우며, 季節學期課程의 운영을 全擔하는 부서를 설치할 필요는 매우 커진다고 하겠다.

(2)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

예컨대, ‘夏季大學’(가칭)이라는 명칭 아래 독립된 事務部署를 두고, 夏季大學長 또는 夏季課程 部長을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給合大學의 경우에는 單科大學長級으로,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學部長級 즉 敎務委員級으로 하계과정을 책임지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이는 하계과정을 총체적으로 計劃·編成·運營하고 評價하는 등 모든 과정에서 敎務委員들과의 밀접한 유기적인 調整協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계과정이라고 해서 결코 여름방학중에만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학기중에는 夏季課程을 준비하고, 2학기중에는 하계과정의 事後 學事處理에 따른 업무가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다. 바람직하기는 夏季課程大學長 아래에 敎務擔當과 學生指導擔當을 두어 업무의 유기적인 分擔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행정부서의 인적 구

성 규모는 각 대학의 事情이나 夏季課程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다를 수도 있음을 前提해 둔다.

夏季課程의 學事管理에 관하여 한두 가지 더 밝혀둘 것은 獨立部署를 설치할 경우, 적절한 數의 助教를 배정하여 교수의 수업을 補助하고 學事處理 및 學生指導 등에 있어서의 諸業務를 보조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財務管理에 있어서는 당분간 獨立採算制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검토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7) 質的 秀越性 提高를 위한 認定制의 실시

夏季課程의 質的 秀越性を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하계과정의 계획과 실시에 대한 면밀한 評價를 실시하여 夏季課程 개설을 選別的으로 인정함이 좋을 것이다.

(1) 理由 및 必要性

마지막으로 提案하는 이 代案에 대해서는 우선 상당수의 사람들이 否定的인 見解를 表明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大學의 自律을 구속하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運營의 妙에 따라서는 결코 제도적인 구속장치가 되기보다는 質 좋은 夏季課程을 질 나쁜 하계과정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教育의 全體의인 질을 向上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본다. 가뜰이나 夏季課程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을 때, 마치고 하계과정은 2等 학생, 2等 교수들이나 적당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 질이 格下되는 듯 보여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學點을 따기 쉽다. 그저 적당히 가르치면 된다”는 식의 思考가 夏季課程에 만연되는 경우를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大學人 스스로가 夏季課程의 質을 固守하는 努力이 기울여져야 한다.

夏季課程은 결코 어떤 義務感에서 모든 대학이 해야 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대학이 너 나 할 것 없이 그저 하나의 구색 갖추기 식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質的 低下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계과정의 質的 秀越性を 제고하려면, 엄정한 評價를 통한 선별적인 認定制가 수립됨이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

이러한 選別的 認可를 夏季課程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할 때, 그러던 누가, 어느 機關에서 하느냐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可用한 段階의 代案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선은 당분간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같은 大學間의 自律協議 機構에 의하여 主導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全國大學教務處長協議會와 같은 기구에서도 主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앞서 밝힌 代案에서 제시된 夏季大學長이 각 대학에 任命된다면 이들의 協議機構에서 主導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大學人들 스스로 그 質을 固守하는 線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예컨대, 매년 12월까지 그 다음해의 夏季課程 開設 計劃書를 제출하여 이를 심의·평가한 다음 일정한 水準에서의 教育의 質이 보장될 수 있다고 判斷되면 그것을 허락하여, 하계과정을 開設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部分的인 認可나 修正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전년도에 일단 성공적인 夏季課程을 운영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評價結果에 기초하여 그 다음해의 하계과정을 事前 計劃承認 없이 허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認可制度가 정착되면, 각 대학에서는 학점의 相互認定이나 하계과정을 통한 大學間의 協同에도 상호신뢰와 責任의 風土를 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認可制度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깊이 있는 면밀한 연구가 先行되어야 함을 첨언해 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大學評價制度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大學發展에 공헌한 바도 크다고 하겠으나, 아직도 評價過程이나 節次 및 그 活用に 있어 문제가 상당히 남아 있고, 또 다소간 회의적인 반응이 大學內에 전혀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夏季課程에 대한 評價認定制度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質的 水準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夏季課程의 발전과 정착을 제한할 수 있는 억제적 작

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結 言

이상으로 本稿에서는 2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季節學期의 本來的 目的과 問題點 및 改善의 基本方向을 밝힌 다음, 몇 가지 改善代案을 제시하고는 그 理由 및 必要性和 實踐方案 및 附隨條件들을 밝혀 보려고 하였다.

季節學期가 實施되기 시작한 지 금년이 겨우 세 해째란 점을 감안하면 문제점이 없을 수 없고, 또 定着되는 데에는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고 問題點만을 들추어내어 비판하기보다는 그 代案을 摸索하는 일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本稿에서는 그 代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本稿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代案들이 결코 오늘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극히 포괄적인 대안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 本稿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결코 最善, 最適의 代案들이라고도 主張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그것들은 代案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코 筆者의 謙卑의 소치는 아니다. 문제는 대학마다 그 事情이 다르고, 또 教育目標

와 教育哲學이 다를 수도 있고, 傳統이 다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本稿에서 제시된 代案들은 理想的일 수는 있어도 現實적으로 그 實驗可能性이 희박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시간적으로도 短期間에 성취될 수 있기보다는 長期的인 改善方向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앞서와 같은 일곱 가지의 代案을 제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夏季課程의 運營改善에 대한 視角을 세우는 데 있어 이러한 측면의 視角도 있다, 또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改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視角의 幅을 넓혀 보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었다. 또한, 그러한 代案들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토론과 연구의 소재로 삼아 論爭하고 사고하는 가운데 더 좋은 代案들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든 大學人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本稿에서 제시된 代案을 채택하도록 說得하기보다는 각기의 입장과 형편에 따라 생각하는 데 밀바탕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시한 것이다. 大學教育은 결국 각 대학 나름대로의 獨特性 있는 教育프로그램을 자신 있게 연구·개발하며, 자신 있게 自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때 自由로와질 수 있다고 하겠다. 夏季課程도 그러한 脈의 大學의 自律化 原則에서는 결코 例外가 될 수 없다고 본다. *